

佛敎의 精神

崔應觀

世上에는 宗敎의 種類도 만다. 그러나 그중에 도가장 超越한 宗敎라 함은 人生에 永遠한 生命을 傳하는 것이다. 如何한 宗敎라도 人生에 永遠한 生命을 傳한다. 그러나 그內容에 至하는 各處 差異點을 가졌다. 持佛敎은 他的 宗敎의 立場을 달이 한 것이다. 그內容은 他的 宗敎에 있어서 一位의 超越한 神이 있다 고 하야 그 神國에 드려서 永遠의 生命을 얻는다 하나 어느 때가 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 자 사람이 神의 地位에 至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 至極히 信하면 神의 眞處에 至할 수 있는 것 다 할뿐이다. 故로 神과 人 即 神人의 關係가 差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佛敎에 있어서 佛과 人과의 差別이 없는 自由의 平等이다. 그는 佛即心이요 心即佛이라 마음여나서는 佛이 없고 佛을 여나서는 心의 存在를 모르느 것이이다. 佛此云하면 覺者이요 宇宙의 生命되는 心即宇宙의 眞理를 覺證한 覺者이다. 佛도 心을 어느 一個의 사람이었다. 故로 우리도 修行하여 覺悟하면 佛이 된다는 것이 眞理의 眞實이다. 이것의 佛敎와 他宗와는 크게 다른 點이다. 佛敎에는 兩方面의 意義가 存在한다. 그는 禪의 敎이다. 다시 말하면 禪은 佛이 되고 即 覺者가 되리니 意味下에서 斷道直入의 方式로 直接斷判하는 것이고 敎는 印度에서 釋迦牟尼佛이 스승으로 體證한 覺者가 되여서 四十九年間 衆生의 上中下根에 應함이 說法한 것이다. 이 예나 佛陀의 一方面으로 觀察하여 보려한다.

佛陀라 하는 것은 宇宙의 眞相과 合一한 人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佛이라 하면 宇宙를 超越하여 우리 人間의 關係를 넘는다. 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宇宙本來의 姿體! 眞相即自然의 姿體에 合一한 處의 人格! 그것을 佛이라 한다. 그러면 眞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大宇宙本來의 姿體! 比하 ... 여 잇슬 자도 그 ... 波形에서 水의 眞相을 볼 수가 잇는 것이요 그와 같이 宇宙의 眞相도 우리 人類生活에 잇는다는 것이 다.

佛陀生活에 잇는 眞相은 무엇인가? 그는 人類社會의 共存共榮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此共存共榮이라는 것을 잘

알면 社會의 眞相을 알 것이요 다시 宇宙의 眞相도 잘 理解할 것이다.

이와 같이 宇宙間의 事々物々에 表現되는 眞相을 一一히 理解하여 이곳에 舍致하면 即 우리의 人格이 여기까지 向上發達한다 하면 우리는 成佛할 수 있는 것이다.

佛敎의 修證者를 梵語로는 菩提薩埵라 한다. 亦是 菩薩이라고 名目하나 菩薩은 佛陀의 所說之 敎을 一一히 修行하여 人格을 作成한 覺者의 地位에 到達한다 하야 菩薩의 發願이라고 처음에 誓願하는 것이 있다. 그는 自利利他이다. 即 自利하고 人을 爲하야 利케하는 곳에 菩薩의 誓願이 잇슬 것이다. 이것이 佛敎에 唯一한 精神이라고 할 수 있다.

世上에서 往々 自利利他를 自利에만 힘줄 주어 利己主義라 하는 듯하나 佛敎은 自己만 조라는 意味는 없다. 佛敎의 精神은 自利보다 도리어 利他에 힘줄 더둔다. 佛敎은 修行하여 薩善의 地位 即 佛地에 至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自己가 覺悟함에 함께 人을 救濟하야 나가는 것이 佛敎의 眞精神인 줄로 믿는다. 이것이 他宗敎와는 特異한 點인 것이다. 他宗敎에 있어서 是 혼자 自己가 天國에 往하야 神主에 親近만 하면 그런 人 듯하나 佛敎에 있어서 是 今生에 未盡하면 來生이라도 再現하야 世上에 全人類를 救濟하야 淨化시키려는 誓願에 邁大한 目的이 있다. 故로 모든 것이 自利利他의 主義로 나가는 것이다.

이 自利々他의 思想은 今世의 社會에도 適合한 思想인 줄로 믿는다. 自己만 조중면 他人은 아무려케 되야도 조라는 生覺 그는 佛敎에서 容許치 않는다.

왜 그리 하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單獨的으로 突然히 단 것은 아니요 現在의 社會로부터 全然 別離하여 自己一人만 存在할 수 잇는 社會만 아니라 全社會를 여나 個人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理으로 社會에는 自利々他의 主義가 必要할 것이다. 宗敎는 人類社會를 여나서는 存在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런데 人類社會를 共存共榮하자면 自利々他의 主義가 唯一한 武器일 것이다.

自然에 生을 받든 人類야! 自己만 살려 하지 말고 自利々他 主義下에서 남의 쓰러하는 가삼을 알피서 共存共榮하자!!